



"내좀 살려주고... 약좀 주면 안되나?"

40을 눈앞에 둔 노처녀 보육사가 출근을 하여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는 간호사에게 들어와 짜증반 애교 반, 사투리 가득한 언어로 인사를 한다.

"뭘 소리예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워, 약으로도 아이의 자위행위를 막고 싶어 아침부터 간호사를 찾은 것이다. 4년째 정신지체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는 그녀는 이미 정신지체장애아동을 다루는 일에는 자신만만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까지 터득한 그런 보육사였다. 그런 그녀가 지치고 포기한 얼굴로 간호사를 찾은 것이다.

## 머 리 권

그녀가 돌보고 있는 방에는 17세가 된 정신지체장애아동 상호(가명)라는 아이가 있었다. 상호는 암전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그저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기분이 불쾌하면 방을 몇 번 뛰는 정도의 행동이 전부인 아이였다. 가끔 몹시 화가나면 100여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아무 소리없이 밥을 다 먹고는 일어서서 먹은 밥을 다 토해버리는 폭발적인 위력을 지닌 그러나 사랑스런 아이였다.

그런 상호가 언제부터가 바지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 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액을 흘리며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간호사께 하소연 하듯 상호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상호는 자위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심지어는 소변과 정액을 방바닥, 장난감에 막 묻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벌을 주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으나 상호는 아무 생각없이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흘리고 다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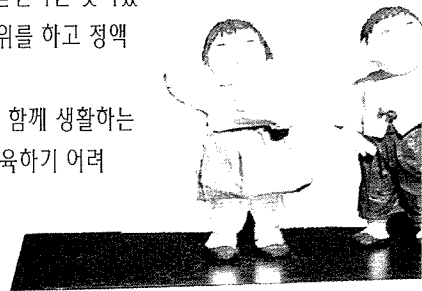
정신지체장애1급이고 자폐인 상호, 100명의 정신지체장애아동 중의 한명,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10반 아동중의 한 명인 상호의 자위행위는 노처녀 보육사에게는 너무나 당황되고 교육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이었다. 상호에게는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 의지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간호사는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터득했듯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에 대한 정신과의사의 조치란 안정제를 투여해 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전부임을 알고 있다. 또한 그 아이를 위해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자위행위를 잊게 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도 알고 있다.

하지만 10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던 보육사, 100명의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서로 인정하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정신과 처방에 의한 그 약이 상호를 얼마나 '멍'하게 하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상호의 자위행위로 인해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일은 서로 피하고 있던 차였다. 대안으로 상호는 언제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다니도록 했다. 식당에 내려와 식사를 하거나 어떤 손을 쓰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는 언제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다녔다. 손을 내리기만 하면 성기로 손이 갔기 때문이다.

상호는 언제나 보육사의 움직임만을 주시 했다. 그리고 보육사가 잠시라도 시선을 돌리면 손을 성기로 향했다. 보육사 또한 어느새 알아차리고 "또, 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상호는 자동으로 머리에 손을 올리는 그런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상호의 눈은 한결 같았다. 밥을 먹을 때나, 벌을 설 때나, 아이들과 어울려 있을때나... 상호의 눈은 한없이 착한, 그러나 겁에 질린 사슴의 눈 그대로였다. 상호는 알고 있을까? 왜 보육사선생님이 자신에게만 손을 올리게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손을 올리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지?



컵에 질린 착한 사슴의 눈과 보육사선생님의 "손"하는 소리는 아주 자연스런 일상으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나 상호를 볼 수는 없는 법, 그녀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상호는 바지에, 방바닥에, 때로는 아이들의 장난감에 일을 저지르곤 하였다. 그런 일상에 지친 그녀는 결국 상호에게 약을 먹이고 싶어졌다.

그 후 상호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정신과 의사도 만나 약도 받고, 놀이치료를 만나 몇 시간이고 함께 놀기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보육사와 운동도 하고, 하지만 상호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잠을 좀 더 많이 잤을 뿐.

미연(가명)과 경찰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22세, 23세인 미연과 경찰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다니고 있는 정신지체장애2급의 성인이다. 그리고 미연과 경찰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다. 아침이면 센터에 나가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오후시간이면 셔틀버스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간다.

미연과 경찰은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헤어지곤 했다. 그런데 미연과 경찰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길목에서 서로 껴안고 서로를 만지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에 의해 미연과 경찰의 부모님에게 알려졌다.

그 사건으로 미연과 경찰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10회에 걸쳐 지속 성교육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만지려 할 때 내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 해야 하고 다른 친구들은 친구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고.

숨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한번도 반항하지 않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다니며 단지 겁에 질려 맑은 눈만을 깜빡이는 상호. 우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 좋아서 그러는데 왜들 그러냐?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실시하는 성교육이 자신들의 행동에 의한 것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단지 새로운 경험에 신기한 듯 성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는 미연과 경찰.

그들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구를 고민하고,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예산을 고민하곤 한다. 정신과 의사와 논의도 하고 특수교사에게 교수법을 배우기도 한다. 비장애인들이 만든 성문화의 틀 속에 그들도 함께 있자고.

정신지체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국회의원의 폭로에 의해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 피임수술에 대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6년이란 시간을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성은 너무나 맑다는 것이다. 그 맑은 순수함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찾아 온 여학생이 예쁜 머리핀 하나만 보아도 며칠을 두고 머리핀 이야기를 하고 머리핀과 결혼하겠노라며 싱겁게 웃던 아이의 맑은 미소가 스친다. 

이금희 · 성남성폭력상담소장